

‘드론 택배’ 내후년 상용화될 듯

‘지역간 이동’ 부터... 대한통운 등 참여 시범사업 내년 마무리· 이듬해 실증사업 단계로 들어가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해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드론 택배 사업이 ‘지역 간 이동(point to point)’ 범위에서는 내후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드론택배 시범사업이 내년 12월에 마무리되고 이듬해 실증사업 단계로 들어 서게 되면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도심 택배는 어려우나 미국 구글과 아마존 등이 말하는 ‘지역 간 이동’ 택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다. 과거에는 전투용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재난 지역 물품 조달, 고립 지역 택배 등 ‘수송’의 측면에서 각광 받으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 이 드론 신기술을 선보이고 공식적인 시연을 진행하며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집 앞까지 배달하는 드론 택배

를 시행하기에는 국내 규제가 여전한 만큼 우선 재난협력과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5월 국민안전처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 택배차량과 드론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재민 또는 고립지역 주민에의 구호품 전달과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돼 영월, 전주 등 시범사업 전용 공역에서 국토부·지자체와 협의해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 추락 방지 기술 및 낙하산 자동 작동 장치를 개발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해 드론이 추락하게 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드론 외부에 장착한 낙하산을 자동으로 펼치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낙하산이 작동하면 추락 위치 신



하늘로 떠오른 드론

우리나라도 갖고 있다”며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확장시켜 드론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택배원들이 하듯 도심에서 택배를 집 앞까지 배달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은 아직 선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강 박사는 “도심 택배를 위해서는 지상에 길이 잇듯 ‘하늘 길’ 설계와 드론의 건물 충돌 방지 기술력 등이 발전해야 한다”며 “미국의 나사(NASA)도 수년째 연구 중인 분야인데 아직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최근 제5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방안이 나오며 드론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드론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수도권 전용 비행구역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인진수 기자

‘국토교통기술대전’ 오늘 개막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7대 신산업 기술 등 전시

국토교통 분야 연구 성과와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오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해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116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시관은 국토교통 신(新)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관과 국토교통 분야별 테마관 등 총 207개 부스로 구성된다.

특별관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소통하는 도로시스템, 드론안전운행 기술,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기술과 한옥, 무가선 저상트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량기술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테마관은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자원 플랜트, 행복도시 공간, 미래철도, 지속가능 교통, 글로벌 항공, 창조기술 사업화, 신기술의 8개 주제로 꾸러진다.

기간 중 국외 철도운영기관 초청 국제 세미나, 탄소저감형 건설재료 기술 개발 국제 세미나,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성과 발표회, 한국 기술개발 포럼 등 국내외 콘퍼런스도 진행된다.

공공기관 보유기술 중소기업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외 발주기관 초청 기술설명회, 연구현장 투어 등 실질적 업무 성과 창출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개막일에는 ‘정보통신(IT)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최진기 오마이스쿨 대표, 민간무인기 실용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심현철 카이스트(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워크숍 4세션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막식에 앞서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과 벤처·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환경부, 닛산 ‘불법조작’ 소명 수용할까 한국닛산, 내일까지 자료 제출 예정 정부, 새 사실 소명되지 않으면 처벌

닛산의 경우차 캐시카이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 파문이 이어 지는 가운데, 한국닛산의 소명 기한 이 오는 26일로 임박했다. 불법 조작 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한국닛산 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소명 기한인 오는 26일 입장을 담은 설명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이를 판단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닛산은 환경부에 입장을 전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6일 캐시카이에 대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가 엔진 흡기 온도 35도 이상이 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것으로 임의 설정했다며 이를 불법 조작으로 판단했다.

조정 기간 새로운 소명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면 일정대로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정지와 판매된 차량 81대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타케 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닛산은 환경부의 발표 이후 줄곧 불법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첨단 음향기기를 한눈에 24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음향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있어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닛산 측은 높은 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연비를 높이려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폭스바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온도 설정값이 35도로 다른 차량보다 낮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흡기 온도 설정 기준이 없다”며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됐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닛산은 오는 26일까지 해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닛산 관

계지는 “최대한 환경부에 소명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시카이의 국내 소유주들은 한국닛산과 일본 닛산자동차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파문 일주일여가 지나면서 소송을 문의하는 소유주는 6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인진수 기자

치매보험 가입자 635만명·가입연령 44.1세

치매보험 가입 건수가 약 635만건에 달했다.

24일 각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634만6967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건수는 2012년 491만5885건, 2013년 574만9010건, 2014년 604만552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평균 가입연령은 44.1세였다.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27%로 가장 높았고 40대 20.8%, 60대 17.9%, 30대 14.9%, 20대 10.8% 순이었다. 70세 이상은 6.2%, 20세 미만은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치매보험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으면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작년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79개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60개 상품은 90세나 100세까지 보장하지만 19개 상품은 보장 만기가 80세가 지남 것으로 조사됐다. /인진수 기자

저축의 날, ‘금융의 날’로 확대·개편

지난 1964년 시작된 ‘저축의 날’이 올해부터 ‘금융의 날’로 재탄생한다.

이는 국민들의 재산형성 방식이 저축에서 펀드 투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금융환경과 그 역할이 변화한 점 등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저축의 날 기념 행사를 금융의 날 행사로 확대·개편해 오는 10월 2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금융의 날에는 기존에 있던 저축, 시민금융분야 관련 포상과 함께 금융개혁분야에 관한 포상을 새롭게 실시한다.

금융개혁 분야 포상 대상은 기술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크라우드펀딩, 소비자보호, 금융감독 쇄신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다.

금융위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금융위 은행과(02-2100-2952), 시민금융과(02-2100-2615),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